

부활의 기쁨으로!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2017 부활절 공연 '주님의 눈물'과 부활절 기념예배 관련 소식.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님만 가득하게 하려면 영적인 말씀 무장, 불같은 기도와 함께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섭리와 성령의 역사

'택함과 택정함'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편, 사진기도로 실명을 치료 받은 콩고민주공화국 루시마 티티 성도의 간증을 전한다.

"그 눈물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주님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성령받아 변화된 사도들의 순교, 2017 부활절 공연 '주님의 눈물'을 화보로 만나본다.

만민뉴스

제785호 2017년 4월 2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부활절 기념 공연, 뮤지컬 '주님의 눈물'

예수님의 희생, 제자와 사도들의 순교의 피가 열매를 맺다



지난 4월 15일 새벽, 금요철야예배 2부 시간에 부활절 전야제로 뮤지컬 '주님의 눈물'이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 본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된 이 공연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전해 주었다.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연합찬양팀, 할렐루야반주단과 드림반주단, 배우, 워십팀, 무용팀, 스태프 등 우리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예능위원회와 공연전문 외부 스태프 등 350여 명이 참여하였다.

1막 '주님의 사랑'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을 시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사역과 가룟 유다의 배신, 십자가의 처형과 주님의 부활 등을 표현했다.

2막 '주님의 눈물'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달라진 제자들의 사역과 순교를 통해 영광으로 나온 제자들, 세월이 지나 주님의 눈물과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많은 이가 영광 돌리는 모습을 그렸다.

'눈물이 앞을 가리네', '부활의 소망', '순교의 눈물' 등 하나님께서 공연을 위해 주신 만민찬양 6곡이 선보였다. 음악감독 이진 집사는 "뮤지컬적인 표현에 적합한 선율

과 가사를 주셨는데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눈물을 마음 깊이 새긴 이들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 뮤지컬과 달리 60분 정도로 짧게 진행되어 대사보다는 음악적 흐름과 가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 라트비아, 벨기에, 싱가포르, 일본, 네팔, 대만 등 해외에서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수준 높은 공연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라트비아 뉴제너레이션교회 당회장 알렉세이 레자예프 목사는 "매우 수준 높은 공연이었고, 음악의 여러 장르가 하나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하나하나 끄

집어내는 기술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주님의 희생, 성령 강림, 그리고 주님 제자들의 순교까지 다뤄져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 후 이어진 충만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기쁨과 천국 소망이 넘쳤다.

다음날인 부활주일 대예배를 통해 당회장 이재복 목사는 '부활'(행 1:11)이라는 설교를 통해 "진정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저녁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통해 주의 사랑을 되새겼다.

출연 소감 김성덕 목사



어느덧 주님의 배역을 맡은 지 15년째가 되었습니다. 늘 '어찌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 은혜롭게 전해 감동을 드릴까?' 기도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3~4주에 걸쳐 적게는 6 kg, 많게는 10 kg의 체중을 감량하는데 올해는 약 8 kg의 체중을 감량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재연하며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연습하면 감사로 눈물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연습 중 긴 지문의 대사를 녹음할 때의 일입니다. 실제로 제 양 팔목과 다리에 예수님께서 못 박하실 때의 고통이 온몸으로 전해져 성령의 감동함 속에 감정을 표현하게 되니 녹음이 한 번에 끝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대하면서 공연 중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대하시던 마음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해마다 이 땅에서 부활절 공연을 통해 주님의 배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7~40)

...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오히려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근본정신도 영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만, 주님만 가득하여 진실한 사랑의 향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사랑

성경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때 그 곁을 지키며 함께 했지만(골 4:14 ; 문 1:24),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자 변질되어 세상을 좇아 떠났습니다(딤후 4:10).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 것들을 다 버린 줄 알았다가 막상 충만함이 떨어지면 다시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힘들다, 버겁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아멘." 했는데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지요. 혹여 누군가가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하면 이전에 듣고 체험한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고 미혹하는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편하고 유익되는 쪽을 좇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 입장을 이해하실 거야.' 하며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 뜻일 거야.' 하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머지 공간은 세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주님만 가득하려면

1) 영적인 말씀 무장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으며 신앙서적들을 탐독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말씀 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지식이 되고 그것을 마음에 이루어 양식 삼아야 '말씀 무장'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무장하면 매 순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자신의 말과 생각, 행동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버럭 혈기를 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남의 허물을 들으면 쉽게 판단 정죄하고 전파하기도 하던 사람이 변화되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 마귀 사단이 좋아할 일을 할 수는 없지.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 영계의 법칙인데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지.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선으로 생각해야지. 은혜와 덕이 되는 말만 내야지.'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인정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 내가 더 섬겨야지.' 이렇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합니다. 머리로 기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안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순간순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듣고 깨우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니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 속

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이 무장되면 성경 말씀을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진리로 일구어져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 5:39)라는 말씀이 양식되어 있으면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려 할 때 '왼뺨도 대어 주라'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로 받아 왼뺨을 대어 줄 수 있습니다.

2) 불같은 기도가 병행돼야 합니다

말씀 무장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끌어 내리는 것이 바로 불같은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조목조목 기도해 나갈 때야 생활 속에서도 매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적용되고 역사합니다. 더 나아가 불같이 기도할 때야 마음의 죄성이 태워지고 성결을 이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의 소망과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아무리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한 번, 두 번 쉬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마음이 어느 순간 허전해지면서 세상을 걸논질하게 되지요. '예전에 누리던 것이 재미있고 좋았는데,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 부럽다.' 하면서 전에 버렸던 육의 것들을 다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마치 잡초를 아무리 베어도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다시 무성하게 돌아나듯이 기도를 쉬면 마음의 할례를 멈추게 되고, 진리로 채워 나가던 마음에 비진리가 다시 자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골 4:2 ; 살전 5:17~18). 매일

기도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불같은 기도가 아니며, 매번 눈물을 흘린다고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을 마주하며 대화하듯이 간절함과 사랑을 담아 중언부언 하지 않고 졸음, 잠냄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하지요.

3)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이만큼 드리고 세상에 저만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 유익이 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뤄 드립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번 먹은 마음을 변개하지 않고 진실하게 지켜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불에 들어간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지켜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갈 5:14) 한 대로 영혼들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Q. 택함과 택정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택함’이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시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구원의 테두리를 정하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정해 놓았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일단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어찌하든 구원받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도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믿음을 갖고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다시 죄를 짓고 구원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택정함’이란 만세 전부터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특정한 사람을 택해 그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등이다.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르든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시므로 그 사람을 선택해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은 물론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므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연단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으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강하고 담대하며 변함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사명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지식을 쌓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택정함 속에 잉태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삶을 살도록 섭리하셨다. 광야에서 홀로 살면서 세상과 접하지 않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다.



해외에서 온 편지

지난 1월 6일, 아침에 갑자기 눈에 통증이 오고 너무 어지러워 출근도 못하고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갑자기 양쪽 눈이 보이지 않았지요. 저는 너무 놀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서 뇌 CT 촬영과 많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치료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주한 콩고 대리대사인 오빠 룬둘라 지미 성도에게 제 상황을 전하자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있는 WCDN(세계기독의 사네트워크) 본부에 문의해 ‘망막 동맥 폐쇄’에 의한 실명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듣고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3주가 되어가니 절망감이 엄습하고 자포자기가 되었지요.

그러던 중 만민중앙교회 지교회인 킌사사만민교회 담임 이호수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 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26일, 저희 집에 오셔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들으며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해

당회장님께 사진 기도받을 것을 권면해 주셔서 저는 그대로 행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1월 28일, 오빠가 당회장님 설 만남 시 제 사진을 준비하여 대신 기도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를 뒤, 참으로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측 눈에 촛불 같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는 양쪽 눈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눈앞에 있는 물체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기뻐 킌사사만민교회에 등록해 만민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뒤 제 눈은 계속 호전되어 색깔도 구분하고 글씨도 잘 보게 되었으며, 지금은 온전히 회복되어 정상이 되었지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만 같습니다.

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직접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역만리 먼 한국 땅에서 사진 위에 기도를 받았는데 이처럼 치료해 주시니 만민의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망막 동맥 폐쇄로 실명된 양쪽 눈, 사진 기도를 받고 이제는 잘 보여요!”



루시마 티티 성도 (52세,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만민교회)

4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4.23~4.29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부활 1 ▪ 공부 잘하는 비결 11
- 믿음의 분량 1-3 ▪ 생명의 씨 1-4
- 2차 영혼육 6-12 ▪ 공간과 처원 6-7
- 죄의 뿌리와 성결 2 ▪ 천국 42-47
- 요한계시록 강해 69-75 ▪ 일곱 영 1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2

GCN TV설교

-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수진목사)
- 공력(이희선목사)
- 신 3(신동초목사)
- 열 재앙 38(정구영목사)
- 율법, 사랑(김수정목사)
- 사랑의 빛진 자(황금란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8
- 권능 스페셜 13 ▪ 마지막 때 2
- 창조와 과학 10 ▪ English 8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6
- 내 마음의 찬양 16
- 모두 드려요 35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3
- 에스토니아 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8

전국 어디서나
alleg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TV

2017 부활절 뮤지컬

주님의 눈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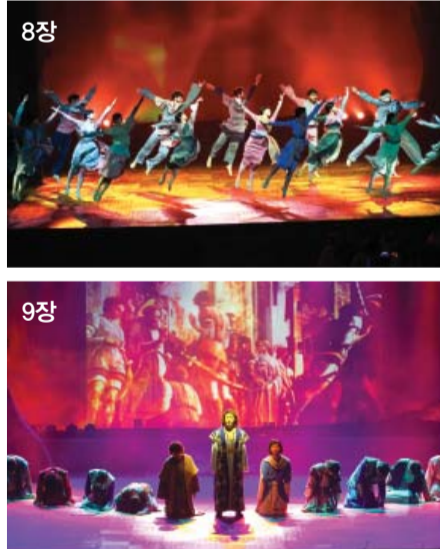
제1막 주님의 사랑

- 1장 인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노래
- 2장 서곡
- 3장 주님의 사랑/
막달라 마리아 & 동정녀 마리아의 듀엣
- 4장 주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가롯유다의 배신
- 5장 체포와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3번 부인
- 6장 십자가 처형/ 십자가의 고난과 운명
- 7장 주님의 부활/ 부활하신 주님



제2막 주님의 눈물

- 8장 제자들의 사역/
마가의 디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 9장 순교의 눈물, 영광/
순교를 통해 영광으로 나온 제자들
- 10장 주님의 눈물로 맺혀진 열매/
세월이 지나 주님의 눈물로 맺혀진 열매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에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담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비자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905-2419, 010-2276-1014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